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글 남궁윤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아산재단은 9월 27일 서울 대학로에서 '발달장애 협력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장에서 협력기관 실무자들과 함께한 정몽준 이사장(뒷줄 중앙)과 김태현·김명자 이사(앞줄 왼쪽 2·3번째).

“특별한 주인공보다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공익광고에 출연한 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방송된 광고에는 골목카페의 바리스타(한승규), 거리 공연을 하는 밴드 멤버(이한결), 화가 지망생(박혜신)이 출연한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닌 누군가의 이웃이 되길 원한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2

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 258만여 명의 9%를 차지한다. 10년 전의 17만 명에 비해 135%나 증가했으나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준비할 시설과 사회적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아산재단은 2015년부터 발달장애 지원사업을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자립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발달장애 협력기관에게 최대 3년간 매년 1억



컨퍼런스에서 인사말 하는 정몽준 이사장.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왔으며, 첫 해에 8개 기관을 선정한 이후 총 31개 협력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자문교수와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발달장애 협력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해 1년 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협력기관 실무자 100여 명 참석

2019년 발달장애 협력기관 컨퍼런스는 9월 27일(금) 서울 대 학로에 위치한 이음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컨퍼런스는 이음센터의 야외전시장을 활용한 예술작품과 성과 포스터 전시, 5층 이음아트홀에서의 성과 발표회로 진행됐다. 31개 발달장애 협력기관과 유관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재단의 발달장애 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는 발달장애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이흥구·김명자·김태현·오연천·최재성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31개 협력기관의 사업성과와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특별함을 더했다. 이음센터 옆, 마로니에공원에 자리한 야외전시장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1개 발달장애 협력기관의 사업성과를 정리한 포스터와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미술작품이 전시

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포스터를 접한 한 시민은 “이렇게 다양한 발달장애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시장에는 밀알복지재단과 에이블아트, 기장장애인복지관,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등 5개 협력기관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그린 회화 21점과 공예품 19점도 전시됐다.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작품을 관람하던 한 시민은 “설명이 없었다

면 발달장애인의 작품인 줄 몰랐을 것”이라며 높은 작품 수준에 감탄했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전시장을 찾은 정몽준 이사장은 발달장애 사업을 진행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40점의 작품을 감상했다. 재단 이사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도 작품을 둘러보며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감성에 공감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구입하기도 했다. 구입한 작품은 부산 기장장애인복지관의 조태성(19) 작가가 2018년에 그린 ‘환상의 나무와 꿈속의 풍경’(80×100cm)으로, 꿈속의 풍경을 특유의 감성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그림이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협력기관 작가들의 작품 4점을 추가 구입한 정몽준 이사장은 작품들을 서울아산병원 등에 전시해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활동을 알리도록 했다.

오후 1시 50분부터는 이음아트홀에서 성과 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울산참사랑의집 ‘드림하이’팀의 합주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24~27p 참조). 2016년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결성된 드림하이는 14명의 발달장애인이 건반과 첼로, 베이스기타, 바이올린, 드럼, 플루트 등의 악기로 ‘꽃날’ ‘Jazz Suite No.2 Waltz’ ‘Watermelon man’ ‘인연’을 연주했다. 연주자들의 독주 구간에서는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고, 연주가 끝나자 순수한 선율에서 우러나온 감동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김미옥 전북대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Social Inclusion'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위). 컨퍼런스가 열린 대학로 이음센터 야외무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미술 작품과 공예품을 전시했다(아래).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인식”

공연이 끝나고 정몽준 이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정몽준 이사장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나라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다음은 인사말의 주요 내용이다.

“오늘 컨퍼런스에 조금 일찍 와서 건물 옆에서 전시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미술작품과 공예품을 보았는데 작품들이 참 좋은 것 같다. 그 중에서 그림을 하나 샀는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을 것 같다. 울산참사랑의집 드림하이의 공연도 잘 들었다. 아산재단이 설립된 1977년은 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시기였다. 선친께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시면서 아산사회복지재

단을 설립하셨다. 2015년부터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사업을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4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높였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은 사업 중에는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공연을 보았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찾아가서 일반 학생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는 하트하트재단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 일자리로 인정받았다. 또 하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의 보호 모델을 개발한 고양시장에 인종합복지관의 사례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니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정몽준 이사장에 이어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장이 연단에 올랐다. 이봉주 학장은 “지난 4년간 아산재단의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와 발달장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발달장애 지원사업의 긴 장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발달장애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은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Social Inclusion(사회적 포함)에 대한 상상, 그 미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 생애 주기, 환경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위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구성원 모두가 한 사회의 당연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포함’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공감의 사회’, 발달장애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존중받는 사회’, 발달장애인을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품격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름’에 너그러운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오후 3시부터는 2016년부터 3년간 발달장애 사업을 진행해온 6개 기관의 성과 발표가 3개 기관씩 나눠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①2019년 컨퍼런스에는 31개 발달장애 협력기관과 유관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②3년간 진행해온 발달장애 사업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서빛나 팀장.

1부에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지역공동체, 청록원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의 서빛나 팀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주민과 일상을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을 만든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의 조민제 사무국장은 전국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회를 개최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 모델을 개발한 성과를 발표했고, 청록원의 김민진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들려주었다.

사업의 성공보다 확산이 더 중요

3개 기관의 발표 후에는 자문교수인 김용득 교수와 김미옥 교수, 발표자 3명이 무대에 올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득 교수는 “3개 기관의 현장심사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31개 기관의 발달장애 사업은 직업과 문화예술, 생애발달, 가족지원, 지역사회 통합 등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과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증대와 인식 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미옥 교수는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도전적으로 실험한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 협력기관 실무자들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부에서는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밀알복지재단, 충현복지관이 발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정훈 팀장은 장애인 보조기 세척 일자리 모델 등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를 양성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밀알복지재단 이현진 부장은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양성 사업을 보고하면서 국회와 수원시립미술관 전시회에 초청받은 성과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현복지관의 김미영 부장은 발달장애인의 독립 주거모형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업에 대해 들려주었다.

1부와 마찬가지로 3개 기관의 발표 후에는 자문교수인 이봉주 학장과 정무성 총장, 발표자 3명이 무대에 올랐다. 정무성 총장은 “발달장애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예술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포함’의 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이봉주 학장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이봉주 학장은 “발달장애 협력기관들의 사업성과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여러 사업을 모아보니 생애 주기와 예술, 주거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단면이 담긴 것을 보았다”면서 “31개 협력기관은 사업의 성공보다 확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선정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리는 “아산재단의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자립 모델을 제시했고,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3년차 사업을 수행 중인 김경호 희망을심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참석자들이 수시로 발표 내용을 메모하고 질문하는 모습에서 컨퍼런스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공유하기 힘든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접할 수 있어서 기관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